

최근의 石油情勢 변화와 油價管理

李 炳 周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물가총괄과·행정사무관〉

I. 머리말

지난 8월 5일 제78차 OPEC(石油輸出國機構) 2期總會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OPEC 회원국들이 9월 1일부터 2개월간 산유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한 이후 작년年末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油價가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2월 및 3월 2차에 걸쳐 약 20.1%에 해당하는 국내 石油類製品價格을 인하한 것을 비롯하여 5차에 걸친 石油事業基金 조정 및 3차에 걸친 原油關稅率 조정 등 국제原油가격 하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왔다.

최근 原油가격 상승세는 세계 景氣 회복 및 교역 확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그동안 油價反騰에 대비하여 油價인하를 유보하고 많은 油價 하락 財源을 基金 및 關稅로 흡수해 왔던 우리나라의 경우 尙后, 基金, 關稅 및 油價의 조정시기와 규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원유가격 상승폭 및 지속기간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최근 原油가격 상승세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입장에서 향후 가능한 油價管理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최근의 石油市場 동향 및 전망

1. 石油市場 동향

제78차 OPEC 총회에서 산유량 감축 합의는 原油

〈表-1〉原油 現物가격 추이

(단위: \$/B)

	1986 7. 28	8. 5	8. 11	8. 15	8. 15	增 減 (8. 25기준)	
						7. 28比	8. 5比
아라비아라이트	9. 05	11. 26	11. 59	12. 12	12. 43	3. 38	1. 17
브렌트	9. 05	13. 75	13. 25	14. 70	13. 90	4. 85	0. 15
보니아라이트	9. 00	13. 85	13. 35	14. 85	14. 15	5. 15	0. 30
오만	7. 75	11. 90	11. 85	13. 25	12. 45	4. 70	0. 55
두바이	7. 45	11. 65	11. 60	12. 95	12. 15	4. 70	0. 50
WTI	11. 10	15. 05	14. 90	15. 85	15. 40	4. 30	0. 35

〈表-2〉原油 先物가격 추이

(단위: \$/B)

	1986. 6. 28	7. 28	8. 5	8. 11	8. 19	증 감 (8. 25기준)	
						7. 28比	8. 5比
9월선적분	11. 07	15. 02	14. 91	14. 87	-	-	-
10월 "	10. 96	13. 88	14. 63	15. 16	15. 51	4. 55	1. 63
11월 "	11. 10	13. 96	14. 50	15. 14	15. 52	4. 42	1. 56
12월 "	11. 28	14. 09	14. 44	15. 16	15. 52	4. 24	1. 43
87. 1월선적분	11. 24	14. 17	14. 36	15. 12	15. 49	4. 25	1. 32

(뉴욕 先物 市場 기준)

〈表-3〉各國別 措置 내용

	措 置 内 容
사우디아라비아	○86. 9. 1 435萬B/D로 감산 ○인센티브 할인판매방식 폐지
쿠웨이트	○美고객에서 9월중 現物販賣 중단통고
베네수엘라	○86. 8. 1 기준원유수출가 2\$/B 인상
카타르	○86. 8. 1 네트백 판매중단
멕시코	○86. 8월 부터 원유수출량 10%하향조정
이집트	○原油수출가격 2. 75~3. 40\$/BS 인상

現物市場과 先物市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 現物市場에서의 北海産 브렌트油나 WTI등 原油價가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럴당 4~5달러가 상승하였고 先物市場에서도 〈表-2〉에서와 같이 평균적으로 배럴당 4~5달러 상승했다.

또한 OPEC 회원국 및 非OPEC산유국들이 油價하락 방어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할인 및 덤핑 판매행위를 중지하고 原油수출가격을 올리는 등 개별적으

로 各種 油價회복 조치를 취함으로써 油價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表-3 참조)

總會에서의 감산합의내용이 정식 쿼터 조정이 아닌 잠정적 조치로서 형식적 의미에서의 구속력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면에는 다음과 같이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첫째 今番합의는 이란側이 제안한 것으로서 과거 이란 등 일부 강경국과 群小산유국이 합의내용을 준수치 않아 효과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합의사항 이행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둘째 違約의 경우에도 과거의 國益증대의 차원과는 달리 市場戰略約 차원에서의 이해대립으로 발생할 공산이 크나 市場占有率확보전략의 수행을 위해서는 OPEC 회원국 전체의 카르텔 형태의 결속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사우디등 페르사만 산유국의 일방적인 違約가능성은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2개월에 걸쳐 이란과 알제리로 구성되는 진영과 사우디 및 쿠웨이트가 주도하는 陣營사이에 OPEC내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정치·경제적 각축이 深化될 것으로 전

망되며, 특히 本合意의 적용기간에 대해 사우디는 本合意가 일시적임을 강조하고 있음에 반해 이란은 그간의 서방선진국과 메이저의 在庫증가분을 감안하여 本합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년말까지의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兩 진영이 또 다시 대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OPEC 내외의 여건변화가 앞으로 國際原油 市場의 向方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向後 油價 전망

앞으로 國際原油價는 OPEC 합의사항의 이행여부, 감산계약에서 제외된 이라크의 산유량 규모, 非 OPEC 산유국의 產油政策, 석유소비국들의 備蓄수요 증가 추세, 사우디의 거취등 여러 요인의 複合작용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向後 油價는 오는 10월 OPEC 임시총회 이후에나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現時點에서 수급상황을 기초로 단기적인 전망을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즉 3/4 분기중 OPEC가 합의대로 하루 1,680萬배럴 수준으로 감산하고 非OPEC가 대폭 산유량을 증산하지 않는 한, 하루 약 80萬 배럴 정도의 공급부족이 발생하고 10월 이후에도 감산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表-4>에서와 같이, 하루 130만 배럴 정도의 수급상 불균형이 발생되어 油價는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OPEC의 과잉생산으로 하루 200萬 배럴 이상의 초과공급이 있었으며, 7월 한달 동안만 보더라도 5,000萬 배럴 이상의 在庫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가 대폭 상승할 만큼의 수급상 불균형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주요 現物 油價는 10월초까지는 현재의 배럴당 13~15달러 수준에서 15~18달러 수준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4/4분기중 油價는 사우디·쿠웨이트등이 시장점유율 확보정책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10월 이후 盛需期時는 하루 150만 배럴 정도 증가하는 수요 충당을 위해 수급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수준까지 OPEC가 생산한도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OPEC 산유량이 현재와 같이 극단적으로 증가되지 않는 한 배럴당 15~18달러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87年 이후 油價는 세계경제회복에 따른 석유수요 증대 OPEC의 減產政策 지속여부 및 非OPEC의 협조여하에 따른 세계 石油 수급상 불균형규모와 原油生産費 등의 경제적 요인과 OPEC 각국간의 다양한 정치·경제적 이해의 대립 및 美國·日本등 主要 石油 소비국의 사우디의 政策에 대한 개입등 非經濟的 요인과 의 복합적인 전개 방향에 따라 좌우될 것이나, '오는 10월 이후 OPEC의 산유량이 盛需期 수요에 맞추어 하루 1,800萬배럴 수준으로 재조정되어 수급상 불균형이 해소된 상태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同수준의 油價는 非OPEC산유량이 급증하지 않는 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油價는 OPEC原油에 대한 수요가 漸增하여 OPEC가 세계原油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가동률이 제

<表-4> 세계石油수급동향과 전망

	1986			1987		
	1/4	2/4	3/4	4/4		1/4 分期
				I	II	
需 要	4,720	4,520	4,610	4,760	4,760	4,810
供 給	4,640	4,670	4,660	4,630	4,750	4,810
非 O P E C	2,790	2,750	2,850	2,820	2,820	2,800
O P E C ¹⁾	1,850	1,920	1,810	1,810	1,930	2,010
在 庫 變 動	△80	+150	+50	△130	10·	-

1) NGL 포함

2) (I) 產出量 16,80萬B/D 전제 (II) 產出量 1,800萬B/D 로 生産上限引上 전제 (資料) IEA, Oil Market Report, Aag. '86.

(表 - 5) OPEC原油生産, 가동률 및 전망

(단위 百萬B/D)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展望)	1992(推定)
需 要	49.7	47.7	46.0	45.2	46.1	45.6	46.5	51.0 ¹⁾
供 給								
O P E C	27.6	23.5	19.8	18.4	18.5	17.2	18.5	21.5
非 O P E C	22.8	23.5	25.1	26.2	27.4	28.3	28.0	29.5 ²⁾
在 庫 變 動	0.7	△0.7	△1.1	△0.6	△0.2	△0.1	-	-
O P E C 市 場 点 有 率 (%)	55.5	49.3	43.0	40.7	40.1	37.7	39.8	42.2
O P E C 稼 動 率 (%)	79.3	68.3	60.4	58.0	61.3	61.9	67.5	79.6

1) 年間 50~100萬배럴 증가전제

2) 1900년까지 年50萬배럴 증가, 91年 以後 年 50萬배럴 감소전제

(資料) IEA, Oil Market Report 各號

Petroleum & Energy Intelligence Weekly Inc., PIW, July, '86

2차 석유위기가 있었던 70년말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을 분수령으로 再反騰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OPEC의 가동률이 80% 이하로 지속되는 경우 油價는 그때 그때의 수급상황에 따라 騰落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OPEC의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회복되는 시점부터는 안정적인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다. 가동률이 80%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기는 세계경제성장의 회복속도 石油代替에너지개발수준 및 北海, 北美油田의 개발및 탐사활동의 적극성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表-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原油수요가 연간 50~100萬배럴씩 증가하고 非OPEC의 산유량이 일정기간 연간 50萬배럴씩 증가한다고 전제할 때, 90년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Ⅲ. 향후 油價管理방안

1. 原油가격 하락영향 및 각국의 대응방안

原油가격 변동은 세계의 貿易수지, 인플레이, 실업 및 개발도상국의 外債問題등에 직접적으로, 金利, 換率 등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세계경제동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원유가격의 폭락으로 일부 소비국에서는 국제수지의 흑자폭이 확대되고 경기회복이 가속화되었으나 일

부 산유국에서는 財政收入이 감소하고 외채상환 압박이 가중되는 등 소비국과 산유국간에 利害가 상반되고 있다. 소비국중에도 에너지輸入依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日本은 円貨강세와 더불어 국제무역불균형을 보다 深化시켜 국제간 무역마찰을 초래하고 있다.

油價변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발전단계, 경제체질, 1인당에너지소비량, 에너지源別構成현황, 무역수지중 原油수출입 비중, 에너지輸入의존도 및 외채규모 등에 따라 相異하기 때문에 소비국들은 原油가격 변동에 따라 自國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부심하고 있고, 석유소비세를 일률적으로 인상한다면가 비축규모를 늘리는 등의 공동보조로 石油市場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유가안정을 꾀하기도 한다.

台灣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약 21%에 달하는 유가 인하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日本은 휘발유 가격및 電力요금 인하를 비롯 유가 하락을 계기로 내수확대를 기하여 성장을 도모하고 경상수지 흑자폭의 증대에 따라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마찰을 도모하고, 경상수지 흑자폭의 증대에 따라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수요를 증가시키는 등 경제종합대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차례에 걸친 油價인하, 3차례의 관세를 조정 및 5차례에 걸친 석유사업기금 조정으로 대응해 나

오고 있으며, 특히 석유사업기금으로 조성된 財源으로서 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비축용 원유구매,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LNG기지건설 도시가스 공급시설등 에너지 관련사업과 산업기술향상및 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체질 강화를 꾀하고 있다.

2. 향후 油價對應 방안

가. 基本方向

에너지 輸入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가격이 직접·간접적으로 수출경쟁력, 물가안정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우리나라에 있어 국제原油가격의 등락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油價管理는 단순한 하락에 따른 효과가 전산업에 파급되어 수출 및 성장을 촉진하고, 에너지 지원간 適正相對價格 유지로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점진적으로 가격기능이 제고되어 자율적인 가격관리가 가능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對應方案

(1) '86 하반기 對應方案

지난 상반기 이후 정부는 原油가격 反騰에 대비하여 국내油價 및 關稅率 조정을 유보한 채 前月中 국내原油 導入單價 실적을 기준으로 石油事業基金을 조정하여 대응해 왔다. 지난 8월 현재는 石油事業基金은 6月中 국내導入原油單價를 기준으로 배럴당 11.90달러를 부과하고 있으나, OPEC총회 이후 油價反騰 효과가 9月中 국내에 파급될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서 基金을 포함, 關稅 및 국내 石油類 製品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느냐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내 石油類 製品가격은 일부 油種을 제외하고는 경쟁상대국과 비교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행 關稅率도 당초 關稅收入計劃額을 초과 달성하는 데 충분한 수준으로 油價가 현수준에서 再폭락하지 않는 한, 국내 石油類 製品가격의 추가인하나 關稅率의 상향조정의 여지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基金조정에 있어 7월중 도입실적가격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9월중 基金을 하향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시기 및 조정폭에 관해 선택의 여지가 있다.

즉 每月 前月中 導入單價 실적을 기준으로 基金을 조정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매달 단위로 基金을 재조정하는 방안과 7,8월중 導入單價와 基準油價와의 격차에 따른 差益에 대한 基金조정을 일단 유보하고 9월 이후 油價추세를 감안하여 9월이후 7~8월의 실적치를 포함하여 基金을 조정한다는 원칙에 부합되고 基金額 조정및 부과시기 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油價 등락에 따라 基金등락폭이 크고 빈번한 조정으로 조정시기 滿了時 基金관리 및 유가대응에 신속성이 결여되는 단점이 있으며, 둘째안은 基金등락폭이 소규모이고 基金관리에 신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精油業界에 혜택을 부여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 현시점에서 국제原油가격 反騰효과가 9월중 국내油價에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7월 실적 기준으로 基金 상향 조정시 精油業界의 자금부담이 가중되어 7,8월중 실적기준으로 基金 조정은 일단 유보하고 9월중 유가 추세를 감안하여 종합대책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2) '87 油價對應방안

내년도 油價대응방안은 '87년중 국제原油가격동향에 全的으로 달려 있다. 현시점에서의 油價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나, 금년 하반기 수급 및 가격여건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배럴당 15~20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油價수준별 대응방안및 대응효과를 살펴보면 <表-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세율을 基本關稅率(5%)로 환

(表-6) 代案別 主要 內容

	主 要 內 容
제 1안	기금은 0.5\$/B 수준 유지 관세율은 基金關稅率로 환원 잔여재원은 油價調整財源으로 활용
제 2안	기금은 0.5\$/B 수준 유지 관세율은 현행 關稅率(15%) 유지 잔여財源은 油價에 반영
제 3안	基金은 0.5\$/B 수준 유지 원유가격이 18\$/B 이하인 경우 關稅收入을 5,500 億원 확보하는 수준으로 관세율을 조정하고 잔여財源을 油價에 반영 원유가격이 18\$/B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일단 油價조정을 유보하고 잔여재원을 關稅로 흡수

〈表-7〉 案別 對應效果

	15 \$/B	17 \$/B	17 \$/B	18 \$/B	19 \$/B	20 \$/B
(제 1 안)						
기금조성액(億원)	650	650	650	650	650	650
關稅收入(億원)	1050	1110	1180	1250	1310	1380
油價조정(%)	△20~21	△16~17	△12~13	△8~9	△4~5	△1~0
(제 2 안)						
기금조성액(億원)	650	650	650	650	650	650
關稅收入(億원)	3150	3340	3530	3740	3920	4130
油價조정(%)	△15~16	△11~12	△6~7	△3~2	1~2	5~6
(제 3 안)						
기금조성액(億원)	650	650	650	650	650	650
	5,500	5,500	5,500	4,800	3,200	1,640
油價조정(%)	△9~10	△5~6	△2~3	-	-	-

원하고 基金도 0.5 \$/B로 환원할 경우 국내석유류 製品 가격은 국제原油가격이 20 \$/B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關稅率이 현행 수준(15%)으로 유지된다면 국제原油가격이 18.5 \$/B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국내 原油類製品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내년도 세출예산 충당을 위해 관세수입을 5,500 億원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유가격은 배럴당 17.5 달러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油價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탄력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게 되는데, 제 1 단계로 油價가 17.5 \$/B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 경쟁국의 油價수준및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정수준에서 油價를 조정하고, 關稅率 조정을 통해 관세수입을 확보, 財政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代案이 가능하여 진다. 관세수입을 5,500 億원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油價조정율은 〈表-8〉에서와 같으며, 이 경우 關稅率과 油價調整率은 포리관계에 있게 되어 상황에 따라 關稅率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아가야 한다. 제 2 단계로 油價가 17.5~18.5 \$/B수준인 경우 政策代案의 선택에는 한계가 있게 된다. 즉 油價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關稅收入 규모를 축소조정하여야 하며, 目標歲收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세율을 불가피하게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전반적인 물가안정기반 위에 국제수지의 赤字基

〈表-8〉 關稅收入 5,500 億원 確保의 관세율 및 유가조정율

(단위: %)

	15 \$/B	16 \$/B	17 \$/B
關稅率	26~27	24~25	23~24
油價調整率	△9~△10	△5~△6	△2~△3

調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성장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油價인상을 가급적 억제하고, 關稅率을 하향조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表-9 참조)

제 3 단계로 原油가격이 18.5 \$/B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政策代案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石油事業基金은 基金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再환원하고 關稅率도 기본관세율 이하로 하향조정되어야 油價인상요인의 相殺가 가능하다. 油價인상요인을 相殺하기 위해서는 관세율은 油價 수준별로 〈表-10〉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내년도 油價대응방안은 국제原油가격 동향에 따라 財政政策 및 금융정책 등 관련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또한 점진적으로 에너지가격 체제의 정부규제범위를 가급적 축소하여 자율적인 가격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表-9〉 현행 油價와 關稅率과의 관계

	18\$/B	19\$/B
(I) 현행油價수준 유지하고 관세수입 축소 조정		
○관세수입(억원)	4,800	3,200
○관세율(%)	19~20	12~13
(II) 關稅收入 일정규모 유지하고 油價조정		
○관세수입(억원)	5,500	5,500
○관세율(%)	21~22	20~21
○油價조정율(%)	1~2	5~6

〈表-10〉 油價인상 要因상쇄에 필요한 關稅率 수준
(단위: %)

	19\$/B	20\$/B	21\$/B
관세율	12~13	5~6	0~1

IV. 맺는말

'85년말 이후 예기치 못했던 原油가격의 急落은 국제수지의 개선, 물가안정등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했다. 특

히 油價반등에 대비 조성된 石油事業基金은 에너지시설 합리화나 산업체질개선등을 위한 財源으로 활용되어 앞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성장요인으로 작용하기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금년과 같은 低油價時代가 再到未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지 모르나, 90년 초반까지는 일정 추세없이 國際原油市場의 수급동향에 따라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原油수입을 全的으로 해외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비국에 있어서는 國際原油市場 동향에 따라 신속하고도 탄력적인 대응책이 특히 필요하게 된다. 최근의 每月 실적에 따른 石油事業基金조정은 油價반등에 대비한 最善策이었으나, 基金징수유예를 검토할 정도로 精油業界에게는 심각한 자금부족문제를 야기시켰다.

향후 油價對應방안은 油價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탄력적으로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한 사전에 예방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장기적으로 에너지가격 反騰에 대비하여야 안정적인 수급및 價格管理와 에너지需要構造의 適正化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新刊案内□

石油 및 石油産業의 入門書

石油의 基礎知識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編著—